

남원시 '임대형 스마트팜' 유치 나섰다

200억원 규모 정부 공모 신청 조성 부지 대산면 선정 설명회 청년 창업농 농촌 보금자리 조성

남원시가 청년 창업농을 끌어들이기 위해 200억원 규모 '임대형 스마트팜(점단농장) 정부 공모사업'에 도전장을 내민다.

남원시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인 '2024-2025년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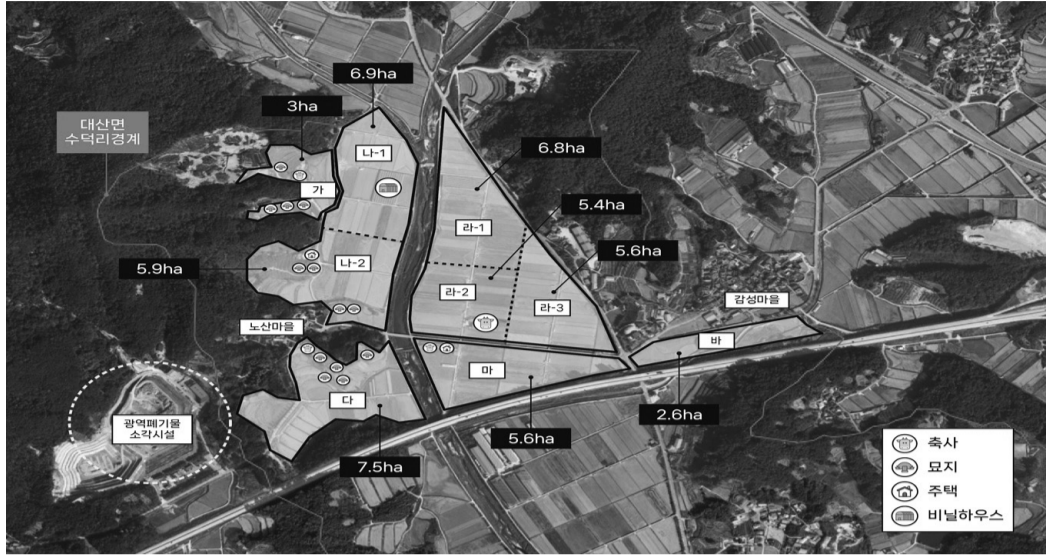
임대형 스마트팜은 농업 용지를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 농업인에게 적절한 임차료를 받고 농장 경영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남원시는 스마트팜 조성 부지로 대산면 일원을 선정하고 관련 사업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

대산면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폐열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에너지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정책을 달성할 수 있는 계기로 남원시 측은 내다보고 있다.

남원시는 땅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0일과 13일, 대산면 감성마을과 노산마을을 찾아 주민 설명회를 열고 토지 활용 동의를 주민들에게 요청했다.

정부 공모 결과는 오는 12월 확정된다. 사업 대상지에 선정되면 5ha 이상 부지에 스마



남원시가 대산면 감성마을과 노산마을 등을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대상지로 정하고 정부 공모사업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대상지 조감도. <남원시 제공>

트팜 기반을 조성하고 온실과 에너지발전 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남원시는 스마트팜 시설을 기반으로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및 천연물 바이오 소재 제조산업까지 연계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스마트 농업단지를 확대하며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효과를 만들어 낼 방침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위해 남원시만의 강점 등을 피력하는 등 '남원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사업' 선정 준비에 매진하겠다"며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남원시가 스마트 6차 농업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 베리엔 바이오식품, 농식품 기업 상품 개발 조력자 역할 토포

상반기 한달 평균 20건 의뢰 분석

고창 베리엔(B&B)바이오식품연구소가 지역 농식품 기업의 상품 개발 조력자 역할을 토포하고 있다.

재단법인 베리엔바이오식품연구소는 올해 상반기 동안 농식품 기업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성분을 분석한 건수가 한 달 평균 20건이 넘는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금강양조 외 11개 업체의 의뢰에 따라 156회 식품 분석을 했다.

고창군 출연 연구기관인 베리엔바이오식품연구소는 지난 2018년 부안면에 베리코트스산산업육성사업 소스 생산시설을 준공하며 출발했다. 연구소는 고창지역 농식품 기업의 식품 분석을 해마다 100건 이상 지원하고 있다.

식품 분석 분야는 알코올·산도 측정 등이 있다. 고창 농식품 업체들은 그동안 인근 도시인 광주나 전주로 분석 시료를 보내 식품 분석을 해야 했다.

지역 업체라면 식품 분석을 한 해 2~3건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료가 여러 개이거나 특정 성분에 대한 분석을 요청할 경우 20% 비용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연구소는 지난 4월 지역 농생명·바이오식품 분야 기업 8곳과 연구자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2023년도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 기술지원'을 펼치고 있다. 이 사업은 농생명·바이오식품 분야 기업의 기술산업화 지원을 통해 제품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창군 부안면에 있는 베리엔바이오식품연구소 연구진이 지역 농식품 업체가 의뢰한 식품 분석을 하고 있다. <고창군 제공>

연구소는 본 사업을 통해 실험동물의 지표인자를 측정할 수 있는 자동혈액분석기와 동물용체성분분석기(DEXA) 등 5종의 첨단 신규장비를 구축한다. 건강기능식품 및 기능성 소재개발을 위해 필요한 전임상(동물)실험 단계에서 연구시스템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기술지원

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희권 베리엔바이오식품연구소장은 "고창군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다각적 방법으로 지역 기업 요청에 적극 지원을 할 것이며 더 많은 분석 지원 혜택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시 축산농가 사료 구매 대출 이자 지원

0.5% 부담...25일까지 신청

정읍시가 사료값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돕기 위해 지난해 대출받아 생긴 이자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읍시가 지원하는 대출이자 대상은 지난해 추진한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과 '특별 사료 구매 자금'이다.

지난해 사료 구매자금의 대출금리 1% 가운데 0.5%를 정읍시가 부담한다.

정읍지역 축산농가는 지난해 사료 구매자금 이자액 4억3000만원의 50%인 2억15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난해 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은 대출금리

1%, 3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시행됐다.

총 445 농가가 430억원의 융자 지원을 받았다. 축종별로 지원받은 농가 수는 한우 358 농가, 젓소 33 농가, 양돈 47 농가, 기타 축종 7 농가 등이다.

축산농가 사료경영안정 지원사업은 오는 25일 까지 신청할 수 있다.

융자 지원 관련 서류와 대출상환 증빙서류, 통장 사본, 사업 신청서 등을 각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내면 된다.

이희수 정읍시장은 "올해 봄 가뭄과 여름 집중호우로 사료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고금리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시가 올해 하반기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예정인 송동면 연산사거리. <남원시 제공>

남원시 하반기 월락동 등 2곳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비 8억4000만원 투입

남원시가 올해 하반기 월락동 호반아파트 삼거리, 송동면 연산사거리 등 2곳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한다.

회전교차로 설치하는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된다.

남원시는 도비 4억2000만원 등 사업비 8억4000만원을 투입해 2곳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한다.

남원경찰과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해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남원시는 지난해 월락삼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 체증을 줄인 효과를 봤다.

남원시 관계자는 "앞으로 전북도에 적극적으로 회전교차로 사업 추진을 건의해 사업비를 확보하겠다"며 "회전교차로가 필요한 지점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 청년기획단' 10명 23일까지 선착순 모집

고창문화관광재단이 청년문화 활성화에 앞장설 '고창 청년기획단'을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

청년기획단이 고창에 사는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이라면 지원할 수 있다.

고창에 있는 직장에 다니거나 고창군 청년 네트워크 동아리, 청년정책협의체 등에 소속됐으면 신청할 수 있다. 청년 관련 문화행사나 축제를 이끈 경험이 있어도 지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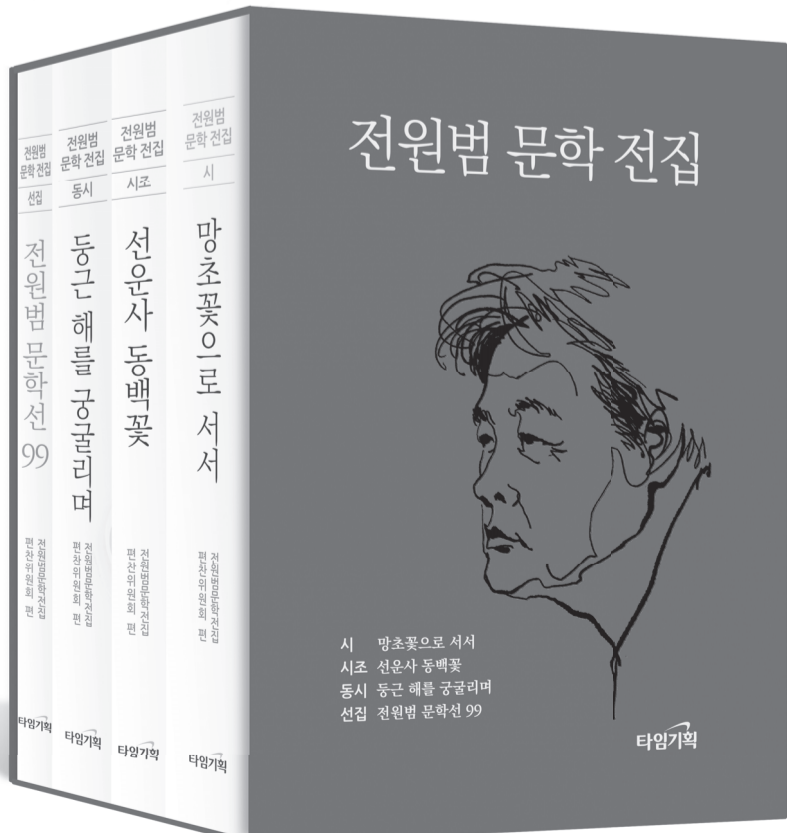
고창군은 10명 안팎을 선착순 모집하고, 청년기획단이 내 의견을 다방면에 반영할 계획이다.

청년기획단은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열고 역량 강화 교육을 받은 뒤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활동을 기획·실현한다.

자세한 내용은 고창문화관광재단 누리집 공지사항(gctf.or.kr)이나 재단 문화사업팀(070-4157-919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준호 고창문화관광재단 문화사업팀장은 "고창에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해 청년기획단의 아이디어 실행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업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멀고 먼 옛날의 사람들은 완행열차로 떠나갔는데



전원범 문학 인생 60년 기념 전원범 문학 전집(시·시조·동시·선집) 출간

인간의 영혼이 만들어 내는 숭고한 정신과 삶의 역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깊은 서정 속에서 펼쳐 보이는 전원범의 시는 시의 미적 형식을 넘어선 자리에서 인간과 삶과 자연의 아우라를 정리하는 통찰을 제공한다. -오윤호(문학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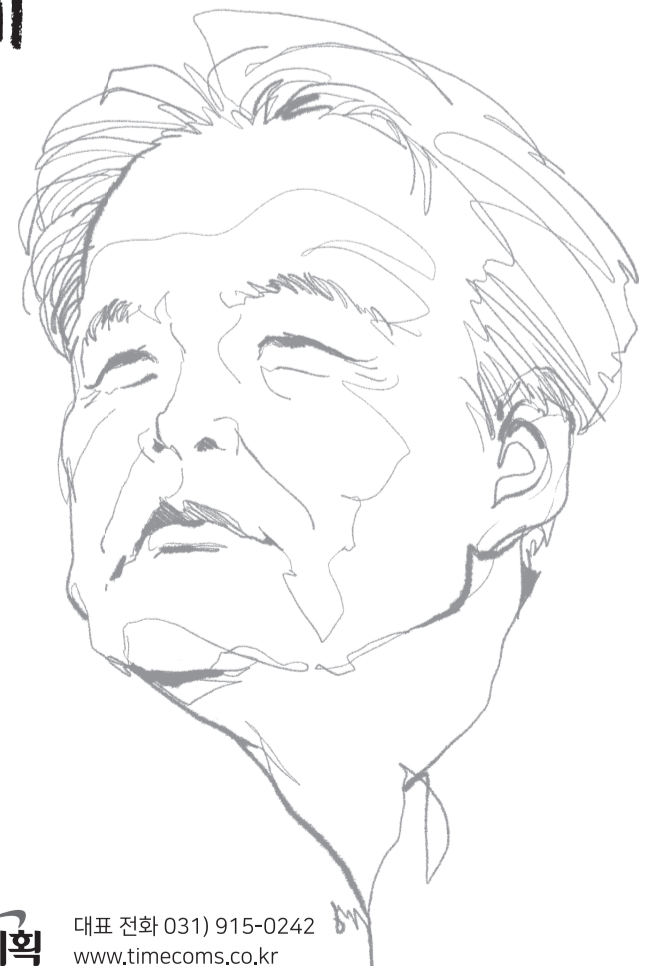
전원범의 시조가 보여 주는 주된 정조는 그리움이며, 쓸쓸하면서 맑은 정신 지향은 번잡한 우리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휴식처를 마련하여 준다. -임창권(시인, 광주교대 교수)

전원범 동시 세계의 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해와 하늘과 꽃'이다. 그는 이를 통해 밝고 맑고 아름다운 동심의 세계를 표현한다. -이준관(시인, 아동문학가)

전원범 문학 전집 세트 총 4권, 100,000원

『망초꽃으로 서서』(시 전집) 『동근 해를 궁굴리며』(동시 전집)
『선운사 동백꽃』(시조 전집) 『전원범 문학선 99』(역문 전집)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 판매 중



타임기획 대표 전화 031) 915-0242
www.timecoms.co.kr